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가정생활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정 영 금(가톨릭대학교 교수) · 차 성 란(대전대학교 교수)
정 지 영(여주대학교 교수) ·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연구센터장)
조 성 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 김 은 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문화의 시대가 되어가는 오늘날에는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문화와 경제가 서로 보완적 상승작용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성장과 기술개발보다는 문화기술(CT)과 문화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문화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술분야의 발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내용으로서의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원형소재의 발굴과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란 예술적 산물이나 상징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문화연구에서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사회체제 외에 살아 숨쉬는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모든 문화가 공유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생활문화는 타인지향적이거나 소비지향적으로 변해가므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고 올바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화산업을 개발함에 있어 스토리텔링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생활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이것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생활문화를 근거로 하여 현대 가정생활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새로운 가정생활문화 형성에 적용해보는 논의들을 통해 가정생활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적용분야를 알아보았다. 스토리텔링에서는 문화원형을 OSMU방식으로 구술이야기, 문학, 만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의 하나가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이나 문화 확산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가정생활문화콘텐츠개발에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활용 가능한 영역 등에 대해 모색해보았는데, ‘가정과 문화’ 학과목이나 일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전통생활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활용해볼 수 있다. 한 예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이 보다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스토리를 발굴하거나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통해 가정 및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의례 및 풍속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재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가정생활문화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정문화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의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